



제8회 어린이 우유 장학금 글짓기 대회 입상작

한국유가공협회에서는 우유소비촉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글솜씨 향상을 위해 지난 85년부터 매년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여덟번째인 92년도에는 전국에서 총 2천1백66명이 응모, 새싹회(회장 윤석중)에 심사를 의뢰하여 최우수 1편, 금상 2편, 은상5편, 동상10편, 장려30편 등 총 48편을 엄선하여 상장과 장학금(장려상은 부상)을 수여했다.

최우수상과 금상2편, 은상2편을 소개한다.

목장의 우유

예지명

대구 본리 국교 6년

작년 이맘 때였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 소리에 엄마가 전화를 받으셨다.

나는 내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한테서 온 전화인지도 몰랐고, 엄마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잠사 후, 전화를 끊으신 어머니께서는 기쁜 소식을 갖고 오셨다.

“지명아, 방금 목장을 경영하고 계시는 외삼촌이 일요일에 우리 가족 모두 목장에 오라는구나. 일요일 날, 무슨 일 없지?”

“네”

나는 목장엘 간다는 말씀에 너무나 기뻐 하늘을 날 것만 같았다.

그리고, 일요일을 달력에 표시하고는 그 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드디어 일요일, 우리 가족은 등산복을 입고 그 곳에서 먹을 음식도 완벽하게 준비하고는 전라남도의 외삼촌 목장으로 향했다.

차 속에서 아름다운 바깥 풍경을 보며 ‘책 속의 목장처럼, 초원이 펼쳐지고 나무가 우거진 목장일 거야’ 하며 그 목장을 상상하였다.

3시간 쯤 가니 외삼촌의 목장엘 도착하였다.

“야! 정말 아름답다.”

내가 기대했던 그림 속의 목장처럼 이름답지는 않았지만, 여러 종류의 나무가 우거져 있고, 꽤 큰 울타리 속에 아담한 집과 온갖 동물이 있어서 그런대로 아늑하고 좋았다.

그 중 나의 관심을 가장 끈 것은 젖소 세마리였다.

“외삼촌, 저 젖소들에게 우유가 나와요?”

“그럼. 마침 우유 짰 시간이구나, 외삼촌이 우유 짜는 모습을 잘 봐.”

나는 우유 짜는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 보았다.

처음 봐서 그런지 정말 신기했다.

“너도 한 번 해 보지 않을까?”

듣고 싶었던 말에 나는 기뻐, 그 자리에서 강충강충 뛰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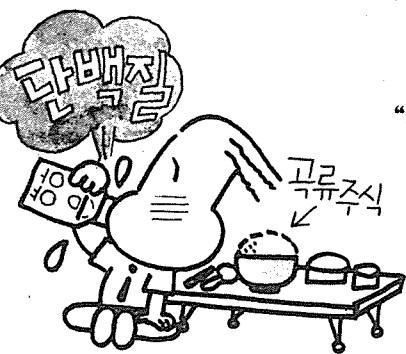
그러곤 떨리는 손으로 젖소의 젖을 조심스레 잡고 누르니 하얀 우유가 잘도 나왔다.

아직 서툴러서 그런지 우유가 양동이 안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흐르곤 했지만, 무척 재미있었다.

““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젖소의 젖을 조심스레 잡고 누르니 하얀 우유가 잘도 나왔다. 서툴러서 그런지 우유가 양동이 안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흐르곤 했지만 무척 재미 있었다.

””



나는 양동이에 든 우유를 손가락에 찍어 약간 먹어 보았다.
 집에서 사서 먹는 것과는 다른 특이한 맛이 났다.
 더 먹고 싶었지만 나중에 먹기로 하고, 꼭 참았다.
 외삼촌께서 내가 잔 우유를 보시고는 칭찬해 주셨다.
 “많이 짰구나, 지명이에게 우유 짜는 일을 맡겨도 잘 하겠는데?”
 나는 빙그레 웃었다.

“잠시만 기다려라, 외삼촌이, 일한 댓가로 우유를 많이 줄게”
 나는 빨리 우유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곧이어, 외삼촌께서 우유를 가지고 오셨는데, 나는 그것을 단숨에 마셨다.
 우유를 잔 덕분에 우유를 7컵이나 마셨다.
 우유 때문에 배가 불러서 밥도 먹지 않았다.
 떠나려고 하는 우리 가족에게 외삼촌이 우유를 듬뿍 담아 주셨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많은 우유도 차 안에서 거의 마시고 말았다.
 그 후로부터 나는 학교에서도 매달 우유를 받아 먹고, 집에서도 두 컵씩
 마시게 되었다.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고 건강에 좋으며 피부도 고와진다는 우유가 점점
 더 좋아진다.

금상

우유속에 담긴 엄마의 사랑

손숙희

대구교대 안동부속국교 5년

오늘도 엄마는 새벽 찬 공기를 가르며 대문을 열고 계셨다.
 나는 엄마가 방문을 열고 마루를 지나서 마당을 지나 대문을 열고 나가실
 때까지 이불 속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내머리 말에는 엄마가 날들어 마
 시라고 놓아둔 우유 한통이 알뜰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새벽마다 우유배달을 나가시는 엄마 때문에 나는 우유가 싫었다.
 엄마가 우유배달을 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살만한데 왜 엄마는 우유배달을
 하시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엄마, 새벽잠도 못 주무시고 나가시는 우유배달이 귀찮지도 않으세요?”
 언젠가 내가 물었더니 엄마는
 “영국 속담에 이런게 있지. 우유를 받아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해진다고. 엄마는 몸에 좋은 우유를 먹고 새벽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 감기 한번 하는것 보았어? 엄마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그리고 가게에 도움도 되고 일석이조가 아닌 일석삼조가 아니겠니.” 하고 설명하셨다.

그래도 나는 엄마가 놓아둔 우유를 짙끔짙끔 마시고 그냥 버리기 일쑤였다. 그런데 어느날 나는 몹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2교시가 끝나면 우리반은 우유를 먹는데 그날은 내가 우유통 뒷처리 당번이어서 친구들이 버린 우유통을 가즈런히 담아 전교 학급이 갖다놓은 장소로 가지고 갔다.

그곳에 우리학교 급식을 만드는 주방의 아주머니 두어분이 나오셔서 하나하나 그 많은 우유통을 다 점검하고 계시는 것이었다.

심지어 한 아주머니는

“아이들 못 쓰겠다. 왜 이 아까운 우유는 안 마시노?”

하면서 남은 우유는 마시기까지 하였다.

한 방울이라도 남은 우유는 다 모아서 화분이나 나무에 부어주면 아주 잘 자란다고 하면서 한방울한방울 남은 우유를 다 모으시는 것이었다.

나는 반쯤이나 남은 나의 우유통을 슬그머니 집어서 교실로 갖고 돌아왔다.

그리고 생각해 보았다.

“엄마가 아침 일찍 집집마다 우유를 돌리면서 번 돈으로 나의 우유값을 주시는데 내가 이것을 안 먹고버리다니……. 우유가 나의 몸에 해로운 것도 아니잖아.”

나는 그날부터 우유를 억지로라도 먹기 시작하였다.

아주 조금씩 입안에 넣고 밥을 먹는 것처럼 오래오래 씹고 느꼈더니 전에 느끼지 못한 맛이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는 어머니 보는 앞에서 일부러 우유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드렸다.

나의 우유먹는 모습을 보신 어머니께서는 무척 좋아 하셨다.

“우리 숙희가 이제 우유의 맛을 알았구나. 엄마가 우유배달을 한 보람이 있어.”

그때부터 우유를 열심히 먹은 탓인지 사람들이 간혹 예뻐졌다 하는 소리를 내게 할 때는 기분이 좋았다.

내가 그때 왜 우유를 꺼려했을까? 지금와서 생각하면 웃음이 저절로 나온다.

내가 만약 그때 엄마의 말을 깊이 귀담아 듣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도 아마 우유를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엄마의 말씀을 지금도 깊이깊이 되새기면서 우유를 마신다.

마치 엄마의 사랑을 마시는 것 처럼.

“

‘우유를 받아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해 진다’는 영국 속담이 있지. 엄마는 몸에 좋은 우유를 먹고 새벽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 감기한번 안걸렸단다.

”

우정이 넘치는 우유 학급

김윤희

충남천안 청수국교 6년

여름 방학이 끝나고 첫 학급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의제를 가지고 학급 회의를 할 것인지 각 부서별로 의제를 냈습니다. 생활부에서는 ‘실내에서 조용히 하자’라는 의제를 냈고, 미화부에서는 ‘교실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자’라는 의제를 냈습니다. 다음에 우리 봉사부 차례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 의제를 냈습니다.

“우리 봉사부에서는 ‘우리반 친구들이 모두 우유를 같이 먹자’라는 의제를 가지고 학급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반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우유를 먹고 싶어도 우유를 못먹는 친구들이 일곱명이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우리들이 조금씩 도와주워서 우리반 친구 모두가 함께 우유를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 했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동의한다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날 회의는 결국 내가 낸 의제가 채택되어 학급 회의를 한 결과 한 달에 한번씩 학급 친구들이 용돈을 아끼거나 폐품을 모아 팔아서 모은 돈으로 우유를 못먹는 친구들을 돕자고 결정을 하고 학급 회의를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자 선생님께서도

“여러분들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를 도와 우리반 모두 다같이 우유를 먹겠다는 생각은 참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선생님도 여러분을 적극 돕겠습니다.”

선생님도 마음이 흐뭇하신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내가 이런 회의 의제를 낸 까닭은 내 짝꿍 영기는 6학년이 되어서 한번도 우유를 먹지 못했습니다. 영기 아버지께서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영기 어머니께서는 남의 집 식당에 나가셔서 겨우 살림을 꾸려나가시기 때문에 우유를 먹을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영기네는 우리 집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서 조그만 방을 얻어 사글세를 내고 사는데 어떤 때는 방세도 못내서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영기는 가끔 도시락을 안 싸가지고 학교에 옵니다. 그럴때면 내 우유를 먹지 않고 영기에게 주면

“싫어, 난 우유를 먹으면 배가 아파”

하면서 살그머니 밖으로 나갑니다. 나는 영기의 말이 거짓말인줄 알고 있습니다. 우유는 먹고 싶은데 괜히 해본 소리입니다. 영기가 교실 밖으로 쓸쓸히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 괜히 미안한 생각이 들어 ‘영기도 같이 우유를 먹

66
우유를 못 먹는 친구들을 도와 다함께 우유를 먹자는 학급회의를 마치고 이 주일이 지난뒤 우리들은 그동안 용돈을 아끼고 폐품을 판돈을 모으니 우유를 못먹는 일곱명의 친구들 우유값을 내고도 조금 남았습니다.

77

었으면…….’하고 몇번이고 생각하다가 여름 방학이 끝나고 첫 학급 회의 시간에 이런 의제를 낸 것입니다.

‘우유를 못 먹는 친구들을 도와 다함께 우유를 먹자’라는 학급 회의를 마치고 이주일이 지난 뒤에 우리들은 그동안 용돈을 아껴 모았거나 폐품을 판돈을 모았습니다. 나는 매달 용돈을 삼천원씩 타는데 이 중에서 천원을 냈습니다. 다행히 우리반 친구들이 모은 돈은 우유를 못 먹는 일곱명의 친구들 우유 대금을 내고도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반 친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우유를 먹게 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즐겁게 먹던 날 선생님께서도 같이 우유를 드시면서

“여러분들이 용돈을 모아 불우한 친구들의 우유값을 내어 준다는 소식을 상규아버지께서 아시고 매달 우유값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시며 앞으로 졸업 할 때까지 일곱명의 우유값을 대주어 우리반 모두가 우유를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상규의 짝궁인 장난꾸러기 정은이가

“상규야, 난 네가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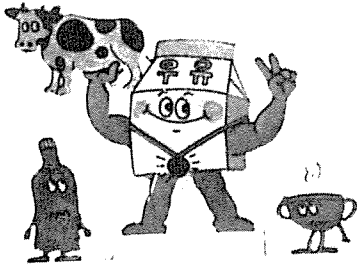
하고 익살스럽게 말하자 교실 안은 온통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들 건강하게 공부 같이하고 또 더욱 우정이 넘치는 즐거운 학급을 만들기를 약속하면서 맛있게 우유를 먹읍시다.”

선생님의 말씀에 우리들은 모두 우유를 먹었습니다. 나는 살며시 영기를 보았습니다. 영기는 눈으로 우리들 모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 조그만 일이라도 남을 돕는 것은 즐거운 일이야. 영기야 우리 더욱 열심히 공부하자.’

나는 맛있게 우유를 먹는 영기와 친구들을 쳐다보며, 이렇게 맛있는 우유를 생산하시는 모든 아저씨들께 감사를 드리고, 더욱 건강하고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두 손을 꼬옥 쥐었습니다.



은상

나의 건강과 우유

김세민

제주 추자국교 3년

저는 매년 운동회가 개최되면 달리기는 꼴찌를 도맡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께 실망을 안겨드린 것이 마음 한구석에 부끄러움으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풀이 죽어있는 제 모습을 보시는 아빠께서는 “달리기는 좀 못해도 괜찮아! 대신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들 보다 공부를 잘 하면 되지” 하시면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슬그머니 책상 앞에 앉아서 책도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달리기를 못해서 속상해 하시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편하게 헤드빌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3학년이 된 금년 봄철 운동회 때는 처음으로 4등을 하였습니다. 비록 상품을 타지는 못했지만 가을 운동회 때는 꼭 입상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께서는 그것이 다 우유를 규칙적으로 마신 덕택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매일매일 우유를 꼭 마시고, 음식을 골고루 잘 먹으면 가을 운동회 때는 1등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곳은 교통이 불편한 낙도이기 때문에 1년여 전만해도 우유가 배달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작년부터 배달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식구들은 배달 첫날부터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2년만에 마시는 우유는 꿀맛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도 우유를 마실 때 마다 매우 고마운 생각으로 마시게 되었습니다.

가을 운동회 때 입상을 목표로 꾸준히 우유를 마시던중 갑자기 여객선 교체운항 관계로 여름 두달 동안 우유배달이 중단되었습니다.

2년 보다 지루한 두달이 지나고 어른들의 노력으로 우유 배달이 재개되자 저는 급한 나머지 운동회 때까지 저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엄마 몰래 한봉지씩 마셔 치우곤 하였습니다. 물론 나쁜 행동인줄 알면서도 얼마 남지않은 운동회 입상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우유값 계산 때문에 배달 아줌마와 엄마께서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 따지는 모습을 목격하였지만 모르는척 하였습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아줌마는 아줌마대로 기록을 하시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겠지만 제가 몰래 마셔치운 우유가 계산 차이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엄마께서는 우유값 지불 후에도 달력을 들여다 보시면서 고개를 가우뚱 거리셨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운동회날 입상만 하면 제 잘못을 털어놓을 작정이었습니다.

운동회 전날 엄마, 아빠께서 내일 학교에 오시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엄마께서는 오신다고 했으나 아빠께서는 바쁜 일이 있어서 못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빠께서는 제가 만년 꼴지를 하는 것이 창피해서 학교에 안오시기 위한 핑계란 생각이 들어서 더욱 이를 악물었습니다.

운동회날이 되었습니다. 만국기 펄럭이는 운동장에서 개회식이 끝나자 유

“

저는 매년 운동회 때 달리기는 꼴찌를 도맡아 했으나, 3학년때는 처음으로 4등을 했습니다. 엄마께서는 그것이 다 우유를 규칙적으로 마신 덕택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우유를 매일 매일 꼭 마시고 음식을 골고루 잘 먹으면 가을 운동회때는 1등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

치원 동생들 달리기부터 시작해서 3학년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100미터 달리기 출발선에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저는 가슴이 콩닥거리고, 오줌도 마려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으나 신호총 소리와 동시에 끝인 지점을 향하여 힘껏 달렸습니다. 결과는 3등이었습니다.

상품으로 탄 노트 1권을 엄마께 맡겼습니다. 다음 경기를 위하여 엄마께서 주시는 우유 한봉지를 마셨습니다.

곧이어 진행된 계산하며 달리는 컴퓨터 경기에서도 3등을 하였습니다.

노트 2권을 탈 때까지도 교내에서 아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전 경기가 끝나고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점심을 먹는 시간에 저는 2권의 노트를 들고 아빠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마치 프로야구 선수가 극적인 순간에 홈런을 치고 홈인하는 기세등등한 모습 그대로 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면서 노트 2권으로 3등 만세를 불렀습니다. 아빠께서는 머리를 쓰다듬으시다가 와락 끌어안아 주시면서 “아빠가 응원을 갔더라면 1등도 할 수 있었겠구나.” 하셨습니다.

오후 경기가 다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께 우유를 몰래 마신 사실을 말씀 드렸더니 “우리 아들이 범인인줄 알았지! 우유 덕택에 3등을 두번씩이나 했고, 자수도 했으니 용서를 해주지.” 하시면서 기분 좋게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쁜 나머지 냉장고에서 방금 배달된 싱싱한 우유를 꺼내어 꿀꺽 꿀꺽 마시며 3등 입상을 자축했습니다.



은상

고마운 우유

김요현

경기연천군 연천국교 3년

내 별명은 ‘쭈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 우유 이줌마도 그렇게 불러 주시고, 엄마, 아빠도 그렇게 불러주신다.

나는 엄마젖이 모자라 우유를 먹고 자랐다.

내 사진첩에는 기저귀 차고 입을 쭉긋 내밀며 젖병 꼭지를 열심히 빠는 내 모습이 남아있다.

내 별명이 ‘쭈쭈’가 된 것은 내가 말을 배우기 전에 우유를 달라고 할 때 쭈쭈라고 중얼거렸기 때문이다.

손님들이 오셨을 때 엄마는 나를

“요현아!”

하고 부르시지 않고

“쭈쭈!”

하고 부르시면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나와 엄마를 쳐다보신다.

외삼촌 편지에도

“보고 싶은 쭈쭈” 라고 쓰시고 전학 간 내 친구 소원이 편지에도

“쭈쭈야! 그동안 안녕?”

이라고 쓴다.

내가 다섯 살 때 쭈 나는 젖병을 물고 대추나무 아래에서 신나게 놀았는데 이웃집 할머니께서 지나가시면서 나를 보고

“너 몇 살인데 아직도 젖병을 물고있니?”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도 나는 계속 젖병을 물고 다녔다. 젖병이 나한테는 참 좋은 친구였나보다.

엄마는 그 때까지 젖병을 물고 노는 것이 창피했는지 저녁에는 컵으로 우유를 마시는 연습을 시켰는데 나는 컵에 먹는 것이 싫어서 젖병을 달라고 울기도 했다고 한다.

유아원에 입학하는 날이었다. 예쁜 모자도 받고 토끼가방도 받았다. 엄마는 유아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젖병에 우유를 가득 담아 주셨다. 내가 한 통을 다 먹은 뒤, 엄마는 말씀하셨다.

“내일부터는 젖병에 우유를 먹으면 선생님이 유아원에서 쫓아낸단다.” 하시며 가위로 젖병 꼭지를 다 잘라버렸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 때부터 밤에 잠 잘 때면 젖병 생각이 많이 났지만 다시는 젖병을 빨 수 없었다.

국민학교 3학년이 된 나는 지금도 우유를 많이 먹는다. 내 친구들은

“요현이 얼굴 참 통통하다.”

고 자꾸만 만지고, 피아노 선생님께서도 통통한 내 손을 예쁘다고 만져주신다.

지금 생각하면 쭈쭈를 달라고 졸랐던 애기 때부터 우유를 많이 먹었기 때문인 것 같다. ‘쭈쭈’라는 내 별명은 부끄럽기도 하지만 나를 튼튼하게 해준 우유가 참 고맙기도 하다.

66

내 별명은 ‘쭈쭈’
다. 오토바이를 타
고 다니시는 우유
아줌마도 그렇게 불
러주시고, 엄마 아
빠도 그렇게 불러주
신다. 내 별명이 쭈
쭈가 된것은 내가
말을 배우기전에 우
유를 달라고 할때
쭈쭈라고 증얼거렸
기 때문이다.

99